

고흥 녹동항 드론쇼, 관광·상권활성화 두 토끼 잡는다

13일 팡파르... 1500대 드론 군집비행·멀티미디어 불꽃쇼
11월까지 토요일 공연...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상시 운영

고흥군이 '녹동항 드론쇼'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흥군은 오는 13일 오후 8시 녹동항 바다정원에 서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드론 1500대 군집비행쇼, 멀티미디어 불꽃쇼, 오리퇴치 상용 드론 비행 시연, 레이저쇼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개막 공연 작품은 '2024 합천도약 희망찬 고흥의 봄'을 주제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을 알리는 공감 연출콘텐츠를 구성해 공연이 펼쳐진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매 주말 드론쇼가 펼쳐지는 녹동항 일원에 먹거리 타운 포차·푸드트럭 존과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이 상시 운영된다. 공연장 주변으로 드론쇼와 연계해 확 달라진 소록대교 경관조명쇼, 민속놀이 체험존, 돌영상관, VR 체험관 등 볼거리, 즐길 거리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고흥 관광 활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녹동항 드론쇼는 드론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 제

고와 더 품격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한 고흥의 대표 야간 볼거리 관광 기획 상품이며, 전남 최초 상설 공연이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녹동항 드론쇼는 매주 이야기가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해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환상적인 공연을 펼쳐 전국적인 명성과 함께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 누적 관람객 18만여명, 직접적 경제효과 150억원을 거뒀으며, 올해도 녹동항을 비롯해 고흥군 전역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는 드론쇼 개막을 앞두고 진절, 위생 등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공연민 고흥군은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밤마다 소록대교 야경을 배경 삼아 화려하게 수놓을 녹동항 드론쇼 상설 공연이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의 또 다른 매력과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지난해 열린 '녹동항 드론쇼'에서 관람객들이 소록대교를 배경으로 한 화려한 드론 군무를 감상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여수시, 청년 창업가 10명 사업비 2000만원씩 지원

경영·사업화·회계·세무 교육 등도
25일까지 신청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여수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 10명에게 사업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여수시는 '청년도전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비 창업가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시작한 이 사업은 전액 시비를 들여 진행되고 있다. 해마다 10개 팀 안팎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3개 팀이 청년도전 사업 지원을 받았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창업 소재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창업 때 겪는 매출 부진, 자금 고갈 등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여수시는 사업 대상자에게 창업자 맞춤형 지원금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창업 전 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경영·사업화·역량 강화 상담, 회계·세무 교육 등을 지원한다. 공고일(29일) 기준 여수에 사는 18~45세 청년 예비 창업자라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뒤 협약일로부터 1개월 안에 여수에 진입



여수시 청년도전 창업지원 사업 참가자들이 창업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여수시 제공〉

해도 대상에 포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abc@cei.kr)으로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와 전남청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완 여수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자립해 사업의 뿌리를 내립과 동시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청년의 꿈과 도전이 실현되는 청년도시 여수'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 서산나래-포스코GYR테크 장애인 연계 고용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 협약

장애인 고용시설인 '광양 서산나래'와 포스코GYR테크가 장애인 연계 고용에 협업하기로 했다. 광양 서산나래는 최근 포스코GYR테크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GYR테크는 서산나래의 재고제방 생산품을 연간 계약에 따라 일정액 사들이기로 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서산나래는 해당 기업이 장애인 연계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라 부른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의뢰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가 해당한다. 광양 서산나래는 총 12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26종의 100% 우리밀 빵과 과자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시설이 문을 연 뒤 기업체와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한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찬기 포스코GYR테크 대표는 "기업의 직무 특성상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는 어렵지만, 생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왼쪽 박정은·왼쪽)와 포스코GYR테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품 우선구매를 통해 장애인고용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협약을 마중물 삼아 품질면에서 으뜸인 서산나래의 재고제방 구입액을 늘려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은 서산나래 원장은 "이번 사례로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드라마촬영장 새 단장...즐길거리 대폭 보강

옛날다방·사진관 등 새로 들어서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입장 가능

1960~1980년대 추억의 그 시절을 재현한 순천드라마촬영장이 옛날다방과 화랑, 인력거, 오락실, 사진관 등 새로운 즐길 거리를 보강했다. 순천시는 조례동 순천드라마촬영장이 새롭게 단장하고 오는 22일부터 관람객을 맞이한다고 10일 밝혔다. 순천시는 드라마촬영장 활성화를 위해 '순천드라마촬영장 매점 등 체험 행사 운영자' 공모를 벌였다. 공모사업을 통해 촬영장에는 옛날다방과 화랑, 인력거·오락실, 사진관 등이 새롭게 들어섰다. 주말과 휴일 등에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관람객의 호응을 끌어낼 계획이다. 인기 체험 가운데 하나인 교복체험에서는 교복뿐만 아니라 교련복, 영화 의상, 시대 의상 등 의상 가짓수를 늘렸다. '옛날다방'은 커피와 미숫가루, 전통 수제 차 등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관람객이 직접 촬영장비를 사용해 감성 사진도 촬영할 수 있는 사진관도 운영된다. 이달 1일부터는 반려동물 동반입장을 시행하면서 매점에서 목줄, 입마개 등 반려견 용품도 팔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드라마촬영장에 찾아오



옛 교복을 입어볼 수 있는 순천드라마촬영장 '추억여행관'.

〈순천시 제공〉

는 관람객들이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들길 바란다"며 "계절에 맞는 다양한 행사와 다채로운 체험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섬 고교 기숙사생 조식·여객선운임 지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여수시가 섬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생에게 조식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교육환경이 취약한 섬 지역 고등학

생 복지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내 유일한 섬 지역 고등학교인 여남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들에게 성장기 체력 향상을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조식비를 지원(시비 50%, 도교육청 50%)한다.

여객선 운임은 현재 섬 주민의 운임 1000원을 준용하고 차액분을 교육경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원 여수시 평생교육과장은 "각급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미래교육도시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12일 벌교역~고흥~녹동항 철도망 구축 토론회

고흥군이 12일 고흥문화회관에서 벌교역-고흥읍-녹동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흥군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는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정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가

'고흥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목포대 신순호 교수를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군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철도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구례군 용방면 신지리에 골프연습장 개장

구례군 용방면 신지리에 골프연습장이 생겨 최근 개장했다.

최근 열린 개장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구례군은 용방면 신지리(광의철죽동 산로 170) 일원에 지난 2021년 1월부터 55억원의 예산을 들여 골프연습장을 조성해왔다. 건물 면적 932.65㎡, 지상 2층 규모로 올해 2월 공사를 마쳤다. 이곳의 비거리는 250m이며, 28타석으로 조성됐다. 매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초보자를 위한 골프 교습도 마련됐다.



구례군 용방면 신지리에 최근 문을 연 골프연습장에서 이용객들이 연습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에 골프연습장이 처음 건립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도록 생활 체육 기반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